

“제일 많이 차인 사람 공유... ‘도깨비’ 캐스팅 뿌듯”

“시청률 때문에 매회 불안이 크죠. 옛날에는 밤도 책상에서 엿만 먹었어. 시청률을 제가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책상 앞에 18시간씩 앉아있고 그랬죠.”

2004년 ‘파리의 연인’을 시작으로 ‘프라하의 연인’(2005), ‘연인’(2006), ‘온에어’(2008), ‘시티홀’(2009), ‘시크릿가든’(2010), ‘신사의 품격’(2012), ‘상속자들’(2013), 그리고 지난해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까지 인기작을 줄줄이 낚은 스타작가 김은숙(44)도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청률인 듯했다.

김 작가는 6일 오후 서울 동대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콘텐츠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제가 과거에 어디에선가 ‘남의 돈으로 예술하면 안 된다’고 치기 어린 말을 뱉어놓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 드라마에 스태프까지 포함하면 약 150명의 식구가 있으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히트한 ‘태양의 후예’ 방송 때도 시청률 걱정엔 잠 못 이루 날이 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배우들 덕에 1·2부 시청률이 15%대가 나왔지만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3부부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부 방송 후에 밤 11시 10분부터 시청률이 나오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술을 마시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태양의 후예’ 시작 무렵이 ‘김은숙 이제 글 못 쓰네?’ 이런 반응들을 듣고 있었을 때거든요. 제 드라마는 아무래도 ‘김은숙표’라는 이름이 붙으니깐... 시청률이 떨어지면 모든 욕을 내가다 먹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다행히 3부에서 20%가 넘었어요. 시청률이 오면 걸 확인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주연이었던 송중기와 송혜교를 결혼에 골인하게 하는 공로도 세웠다.

“혜교 씨가 저한테 ‘유시진 역할이 송중기를 다 버려놔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원래 중기 씨 성격이 굉장히 멋진 ‘상남자’예요. 지킬 것 딱 지키는 친구였는데 ‘태후’ 덕분에 거기에 달콤함이 없어졌다 보죠? 그래서 요새 최고인 모양입니다. 둘이 아주 너무 예뻐요. 서로 좋아 죽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김은숙은 자신이 쓴 드라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파리의 연인’에서 한기주(박신양 분)가 강태영(김정은)에게 “애기야, 가자”라고 말한 것을 꼽았다.

김 작가는 “질 지금까지 먹고살게 해준 대사다. 그 대사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처음에 그 대사를 썼을 때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PD께서 ‘작가가 쓴 대사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줘서 적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박’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깨비’ 중에서는 김신(공유)이 지은택(김고은)에게 메일발에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고백한 장면을 꼽겠

김은숙 작가 ‘콘텐츠인사이트’ 강연

가장 기억 남는 장면 ‘애기야, 가자’

시청률 걱정엔 잠 못 이루 날 많아

영화·책·드라마 보면 배울 게 있어

다”며 “도깨비가 메일목을 좋아해서 메일발을 배경으로 했는데 9월에 보름정도만 꽃이 피는지 몰랐다. 하루 만에 쓴 부분인데 사랑받아 좋았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차기작인 이병헌·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션샤인’과 관련해선 짧은 소개와 함께 ‘고춧’도 전했다.

“1900년대 초 배경의 시대극이고 의병과 민초, 양반까지 다 나오니까. 이번에는 (오늘 함께 참석한) 김은희 작가 못지않게 (캐릭터들을) 죽일 수 있어요. (웃음) 전투장면이 있거든요.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예요. 세트부터 의상까지 다 돈이라서 ‘경제적인 글쓰기’를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웃음)”

그는 그러면서 “시대극이다 보니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만나려면 말을 타고 가마를 타야 하고, 노비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며 “그런 제약이 집필 때 고민을 하게 하고, 그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만들어줘서 재밌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는 집필 작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전했다.

“처음에는 시가 쓰고 싶었는데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신춘문예에 2년 내리 낙담했죠. 영화 시나리오도 어렵고. 그러다 드라마 대본을 썼는데 잘 쓴다는 얘길 들었어요. ‘여기구나’ 했죠. 가끔 제게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작가 지망생들이 있는데, 이곳은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는 평소 영화나 책뿐만 아니라 일일극을 포함한 국내 외 드라마도 거의 모두 챙겨본다며 “어떤 드라마든 보고 있으면 배울 게 한 가지는 있다”고 말했다.

배우 캐스팅이 잘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늘 선택당하는 입장이라 전전긍긍한다”며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차인 사람은 공유 씨다. 끝끝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도깨비’를 같이 했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잘하다. 참 좋은 배우였다”고 답했다.

글 쓰며 상상했던 장면이 연출 후 다르게 나왔을 때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때가 있는데 경험상 PD가 좀 다르게 연출한 게 더 멋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12살 딸의 엄마이기도 한 김 작가는 “딸과 떨어져 지내



김은숙 작가가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청랑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사이트에서 열린 ‘콘텐츠인사이트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고 있고, 좋은 엄마는 아니다. 좋은 딸도,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작가”라며 “그러나 저는 그것들에만 충실해서는 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이날 함께 참석한 김은희 작가와는 평소 친한 사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그의 작품 ‘시그널’과 관련해서는 “존경스럽다. 무릎 꿇고 봤다”며 “첫 방송을 은희 씨 작업실에서 같이 봤는데 정말 재밌어서 2부 편집본을 보여달라 했더니 김원석 PD가 와서 집에 가라 해서 쫓겨났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습뉴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요제 개최”

방송인 송해 17일 ‘송해가요제’ 광화문광장

소외계층 학생에 600만원 장학금 지원도

구순에도 여전히 ‘현역’인 원로 방송인 송해(90·사진)가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요제를 개최한다.

‘송해 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송해 가요제’를 오는 17일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1차 예선에 이어 오는 10일 추가 예선을 통해 뽑힌 18팀이 경합한다.

KBS ITV ‘전국노래자랑’의 장수 MC로 유명한 송해는 코미디언이자, 성악을 공부하고 12장의 앨범을 낸 가수이기도 하다.

송해는 이날 노원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가수들과 어울리며 얻은 앙코르와 환화를 더 잊히기 전에 남기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송해 가요제 아이디어를 줘서 기꺼이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요 백년사의 기쁨과 슬픔을 전하고, 여러 가수가 이 행사를 통해 더 알려지고 새롭게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간 많은 분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가요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해 가요제는 수상자에게 대상 500만 원 등 상금과 음반취급 기회를 수여한다. 또 종로구 소외계층 학생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습뉴스

신세경, 데뷔 후 첫 팬미팅 “기쁘고 설레요”

내달 10일 동서울아트홀 ‘세렌디피티’ 개최

배우 신세경(27·사진)이 다음달 첫번째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6일 밝혔다.

신세경은 10월14일 오후 2시 동서울아트홀에서 팬미팅 ‘신세경의 세렌디피티’를 연다. 티켓은 오는 15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한다.

소속사는 “신세경이 매년 팬들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며 자주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왔으나 프로그램이 가미된 팬미팅은 처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팬미팅이라고 이름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경은 “늘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맞았다”며 “기쁘고 설레고 솔직하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tvN ‘하백의 신부’를 맡았다.



연습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중우를 만국유랑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찬 지도(재)	00 TV소셜 키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바른정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재)	50 병원선(재)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바른정당 45 SBS 생활경제
11	40 코리안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50 이름 없는 여자(재)		00 애니캐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정오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편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40 똑? 똑! 키즈쿨	00 뉴스브리핑
3	05 다큐 공감(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유지원	10 뽀글이 사랑해(재) 4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5 앙코르 MBC 스페셜 (건강할 권리를 찾아서)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10 남도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10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20 병원선(재) 55 MBC 뉴스데스크	10 특별생방송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 인사이트	45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대기화 UHD 순례 4부작			
10	35 슈퍼 45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다시 만난 세계
11	30 KBS 뉴스라인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 투게더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UHD 특선 드라마 화랑(재)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2016 북한 패선)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에스토니아에 반할지도 4부 발트의 기억을 노래하다)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뿌리채소 잡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평생 단편 당신 없인 못 살아)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13:45 수학이 야호 (인생을 짊어지고)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5:00 사이언스 맥스(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이러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학이 야호(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똑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알면 알수록 궁금한 미안마 4부 가무로 가는 시간여행 경로) 21:30 한국기행 (그곳에서 한 달만 4부 대구 처녀 바람났네) 21:50 과학 다큐 버온드 (38억 년 생존의 기술, 자연이 답이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아줌마 고민 상담소 수상한 철학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음 7월 17일 丁酉)

子	48년생 구제자치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60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아무리 마음이 앞서더라도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간다. 84년생 꼼꼼도 하지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70, 82	午	42년생 적극적이야 한다. 54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다. 66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감만 그만이다. 78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90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행운의 숫자 : 84, 91
丑	49년생 배가 된 노력에 경주돼야 승산이 있다. 61년생 번수와 적에 맞아야 순조로운 것이다. 73년생 몇 발자국 물러서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라. 85년생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모두 이루어지지않는다. 행운의 숫자 : 52, 63	未	43년생 외형만 근사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55년생 이동수가 비치니 채비하자. 67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79년생 실리 못지않게 관계도 중요할 법하다. 91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24
寅	50년생 형세를 타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62년생 지속속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알라. 74년생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흔연히 대하라. 86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먼 말하게 판단할 일임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36, 87	申	44년생 기대 해왔던 바 보다 효과가 커진다. 56년생 생소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68년생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래지사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80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58, 76
卯	51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우순은 풀이 되리라. 63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75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87년생 과장상의 괴로움은 보이나 결실은 탐롭리라. 행운의 숫자 : 63, 12	酉	45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나 기대해 불만이다. 57년생 고운 마음을 쓴다면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81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92, 34
辰	52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64년생 별문 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76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88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5	戌	46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58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70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82년생 차체에 그 골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관찰은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66, 22
巳	53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65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7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된다. 89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2, 00	亥	4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기도를 잡아보자. 59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71년생 관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83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94, 4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